

尹, 美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 ‘자유·연대’ 메시지

29~30일 110개국 정상 화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참여

장관급 지역회의 시민사회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세션을 주재하며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김성겸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회의는 민주주의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회의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 참석국과 진행 방식 등은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다.

한국은 이튿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도 주최한다. 한국이 지난해 말 독자적 인대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장관급 지역회의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도 참석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라자 쿠마르 회장과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 부패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맡은 본회의 세션과 관련, “국제 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제사회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021년 12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만이 참여한다.

로버트 바친스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외신 브리핑에서 “대만은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경민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힘,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심 변함 없다”

전주서 현장최고위원회의

4·5 재보선 김경민 지지 호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마음, 애정과 진심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 시절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

아 무릎 꿇고 참배했던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소속 의원) 100여명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에도 당 대표 당선 후 첫 지역 행보는 호남”이라며 “단순하게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5 재·보궐 선거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전주을) 후보로 나선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번 전주를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 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접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호남 지역 지지체장 후보 중 최다 득표율인 15.54%를 얻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힘 내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정책위의장에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8일 끝나는 걸로 돼 있다”면서 “4월 7일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당 대표와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개막될 전망이다.

현재 김학용(4선), 유재욱(3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외 중진 중에서 윤상현(4선), 조해진(3선) 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3선의 박대출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의총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표 의장, 체코 하원의장 면담...원전수출 등 협력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접견실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아다모바 의장에게 “체코 두코바니 5호기 원전 건설사업에 입찰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도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교통물류 중심지

이자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미래기술·문화콘텐츠·대형 국제행사 경험 등을 갖춘 개최지”라며 “이번 방한 중 부산 방문으로 부산박람회의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다모바 의장은 “한수원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향후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부산에 방문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방탄 국회 불신 끊어야”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

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

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법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화·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연합뉴스



고속도로의 스마트한 진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디지털화, 복합환승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 구축, 고속도로 입체 개발